



국정감사에서 보사위 소속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집요한 질문을 펴고 있는 박영숙(평민) 의원.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국회의원이 보사위·문공부에 배정돼 있는 등 중요한 정치문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5월 기초·광역 동시선거 우세 민주화·지역발전·환경개선 기여 예상

MCA 지자체 설문조사

야가 의견대립을 빚고 있는 의회 의원선거 시기와 방법 대해 국민들은 기초·광역 동시선거를 하되 한두달 늦춰 실시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MCA연맹(사무총장 강문규) 지난 1월23일~2월20일 서울 비롯한 전국 37개 시·읍·면에서 1천3백36명을 대상으로 '지자체 실시에 따른 시민의식'

을 설문조사한 결과, '기초·광역 동시 선거' 지지도가 43.8%로 '분리선거' 지지도 31.9%보다 높았다. 또한 선거시기는 '3월중보다는 한두달 늦추는 것이 좋겠다'가 34.3%, '3월이 적당하다'가 31.0%, '언제해도 상관없다' 21.7%의 의견을 보였다.

시민들은 지방자치제 실시로 민주화, 지역발전, 생활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70%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6% 이상이 지방의회 의원선거 투

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불법 타락선거 강력규제방침에도 불구하고 57.4%가 예전의 선거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 약간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31.9%에 그쳤다.

시민들은 입후보자의 선택기준으로 개인의 인품됨됨이를 최우선(50.9%)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소속 사회단체의 성격이나 활동(29.3%)을 든 반면 소속 정당(5.1%)이나 공약(8.9%)에는 관심이 적었다. 또한 적합한 후보자로는 민간사회단체 지도자(79.6%), 재야 민주인사(58.5%), 노조간부(47.0%), 전문직업인(44.5%), 정당인(35.8%) 등을 꼽았다.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들러리' 역할

여성정치연구소 손봉숙소장 논문 발표

여성 국회의원 대다수가 치열한 경쟁을 통하지 않은 채 전국구로 국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몇몇 지역구 출신 여성의원도 내부·국방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예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여성 고유 분야로 알려진 보사·문공위 등에 우선 배정되고, 여

부터 13대까지 여성 국회의원은 총 61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2%도 안된다. 이 가운데 지역구 출신은 연인원 16명(실제인원 7명)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45명(실제인원 35명)은 전국구와 통일주체국민회의 유정회 등에 의해 선거없이 당선된 경우이다.

3백명 가까운 현 13대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은 6명(민자 5,

지역구 기반을 통한 여성의 국회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여성들도 남성중심으로 형성된 제도적 틀과 정치적 분업체계에 안주하려는 경향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문직·사무직 등에 진출한 여성들이 각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전문성보다는 '여성 안배'라는 특혜로 뽑힌 전국구의원들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훨씬 뒤진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거의가 안배형식 전국구 출신...영향력 미미 여성관련 상임위에 우선배정도 문제점 지적

성관련정책 및 입법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손봉숙 소장은 11~13대 여성국회의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여성국회의원의 충원과정과 원내활동에 대한 연구' 결과를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회 여성정치논단에서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정부수립 이후 1대

평민 1)뿐이며, 이들도 모두 전국구이다.

여성국회의원이 9명이던 11대 때는 지역구 출신이 1명, 12대 8명중에는 2명이 포함됐으나 13대 6명은 모두 전국구일 정도로 지역구를 통해 국회에 진출하는 비율은 아주 낮은 실정이다.

이처럼 지역구 출신 여성의원 이 적은 이유에 대해 손 소장은 "현재의 정치풍토와 선거과정이

했다.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여성들이 국회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법의 보완 △정당과 정치과정의 민주화 △돈 안쓰는 선거풍토를 이루고 △여성들 스스로 '여성의 정치적 경쟁력 기르기'에 나서야 한다고 손 소장은 강조했다.